망상·병고 붙을곳 없고 맘먹기 달려

☞ 19면에서 계속

겁니다. 고 덩어리가 전자의 인과로 인해서, 악하고 모자랐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한 마음으로 돌려 거기서 전부 나오는 거라고 믿는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왜 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왜 나는가 하면, 그건 목석이게요?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좀. 무조건 왜 자기를 믿지 못 하십니까? 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 자기라는 게 없고 고정됨이 없다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그렇게 믿으시고 한번 나가보시면, 해결이 되든 안되든 주인공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꼭 몸이 있을 때 공부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다리를 못 써서 영 왕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 몸뚱이는 내 시자인데, 주인공의 시자인데 이 시자 몸뚱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 심부름을 해. 이 다릴 걷게 해야 될 거 아냐!' 하고서는 일어났더랍니다. 그러니깐 벌떡 일어나 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길 걸어왔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둔자는 빨리 깨우칠 수 있고 아주 약은 사람은 오히려 더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저 알아도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 좀 모자라듯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모자라는 공부, 봐도 보지 않는 공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공부 이런 걸 좀 배우세요. 그런다면 속에서 모든 게 물리가 터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술술술 풀려서 나갈테니까요.

망상 어떻게 하면 끊어지나요

문 공부를 하는 중에 망상 때문에 그르친다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상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망상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망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끊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나오느냐.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얼마나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관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자유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으면 꽁지가 꽁지를 물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저 내일 모레 한달 후에 일인데도 그냥 오늘서부터 그 날까지 그냥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주인공에 맡기시고 침착하게 있으면 그때에 몸으로 할 거는 몸으로 하고 말로 할 것은 말로하고 보이지 않는 데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바로 거기서 하구요. 이렇게 하면은 일이 순조롭게 되면서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진실로들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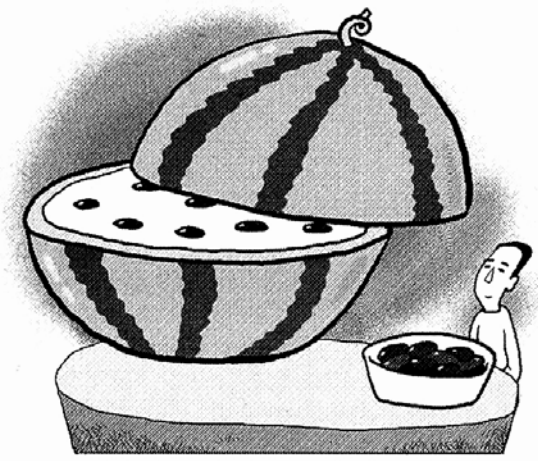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끊는 게 아니라 녹이라 이 소리죠. 거기에 말리지 말고 끄달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망상도 붙을 자리가 없구요. 병고도 고통도 붙을 자리가 없죠. 그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그게 바로 묘법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문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나 점성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지구의 한계성, 이상기후와 자연환경의 파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곧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 종말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종말이 오는 겁니다. 불로 심판을 한다는 지가 빌쳐, 내가 스물 몇 살에 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여지껏 아닙니까. 왜냐?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과 심판을 하는 것이, 이 세계에 그렇게 닥쳐온다. 우리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이 됐습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게 발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파를 통해서 오고 가는데 그것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 마음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전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입력을 해서 꺼내서 쓸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네들이 예수가 말씀한 것을 잘못 써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썼기 때문이죠. 그 뜻을 몰라서요. 무의 세계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파괴가 돼야 새로이 새 시대가 발전이 되죠. 지금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만, 만약에 전자에 화산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화산이 터진 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을 겁니 다. 그것을 재료로 못하고요. 이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저 나라가 부자가 되고, 저 나라가 또 싸움이 나면 또 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게 혼란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가 끝간 데 없이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림살이하듯 잘 생각해서 너무 해가 없이 치닫는 문제들을 가라앉히면서 빨리빨리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종말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나 또는 이 지구 자체가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은 수명이 짧지만 지구의 몸은 수명이 길죠. 수명이 긴데 긴 나름대로의 우리가 마음의 능력의 집을 가꾸어 나간다면 절대로 그건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불교는 생명과 맡이니까요. 마음 전달이니까요. 그게 불교입니다.

목탁만 치는 게 불교인 줄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들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말이 와서 우리가 못살면 어쩌나, 나 늙을 때 까지도 못살면 어쩌나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이 마음, 한마음이라는 게, 우주전체를 한 그릇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 **모든 걸 자기가 벌여놓고 행하고**
> **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오려 애쓰니**
> **자기 습관 탓이지 누굴 탓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루 없는 도끼로써 그 기둥을 다듬어서 하늘을 받칠 테니까 자루 없는 그 도끼를 다오' 하듯이 기둥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일산이라는 그것도 역시 기둥이죠. 뒤집으면 전체를 담고 제끼면 전체를 덮고, 굴리면 전체 굴리니 이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요리로 만들어서 모두 여러 중생들에게 내려 주는 것이 그 얼마나 참다운 자비며 사랑이겠습니까? 종말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보배를 좀 찾으세요. 마음의 보배부터 찾아보십시오. 즐거움이 항상 깃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진리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종말도 없구요.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 믿는 게 기복 아닌지

문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정말 조바심의 연속입니다. 온통 조바심을 내야 겨우 하나를 달성할까말까 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바심이 없었다면 현재의 내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조바심을 내야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만이 이 조바심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면 괜찮을까요? 조바심을 내건 안 내건 주인공은 움직여 주나요? 한동안 주인공에다 맡긴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이 편해졌다 싶더니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주인공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라는 것도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경전에 주인공이란 말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불성과 같은 것인가요. 불성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계시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인공을 믿으라는 것 역시 기독교의 하느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결국 주인공이라는 것 역시 새로운 기복신앙이 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요즘 힘이 빠집니다.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납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 영혼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를 진화시키고 탄생시키고 이렇게 해 온 장본인이 바로 나의 주인공, 즉 주장자 입니다. 경전에서는 주인공을 일컬어 불성이라고도 하고 진여(眞如)라고도 하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도 하고 참나(眞我)라고도 하죠.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이름조차도 방편이에요. 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두었고 '이뭣고' 나 '시심마' 라는 화두를 선지식들이 참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주인공이라는 걸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그게 놓는 거고 믿는 거고 그렇지, 꼭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自佛)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그대로 송장이 되겠죠.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불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인' 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 하는 것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화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일거일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레! 그런데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나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의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나의 주인이지 따로 또 무엇이 있어 돌아가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모든 걸 자기가 벌여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울고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대로 거기에 입력이 되어 나오는 것들에 속아서 자꾸 떠 벌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다 자기가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나쁜 거 좋은 거, 일했던 거 말했던 거, 하루 24시간 걸어온 거를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하는 그놈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놈, 그 한 놈이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알고 있는 그놈이 바로 주인공이자, 내 몸에 그대로 부착이 돼 있으니까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 말로 해서 알아듣는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다 오직, 모든 것을 몰두해 보려는 큰 용단과 신심, 용맹심을 일으켜서 일체 만법과 또는 만물의 활용을 나 자체가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단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아닌 말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믿고 맡길 때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구요.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을 발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임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육임(래정비법)강좌안내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아는 법)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법)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 일의 되는 날자 잡는 법)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법)

위 내용의 강의를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실시하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여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장소 및 시간

(강의료는 없습니다.)

- 서 울 관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옆건물)
  TEL : 02-993-8680
- 부 산 해정식당(매주 일요일 오전10시~오후3시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129-2(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너편)
  TEL : 051-781-2669
- 대 구 보리알 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압산출구 새한약국 뒷편 2층)
  TEL : 053-653-0287
-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 전 주 전북일보 전주지사(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뒤 제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아원 철학원 (기동제일교회 맞은편)
  TEL : 031-242-8813
-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 원 주 노겸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다리(경찰서 앞)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 인 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65-2 호봉사(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구 송도역에서 유원지방향 1킬로 지점)
  TEL : 032-833-4488
-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부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명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문의전화 : 02-993-8680